

LG-Caltex정유

「미래의 얼굴」로 세계를 보다

이 병 무

〈LG-Caltex정유 홍보광고팀 부장〉

1. 96년의 경영 개황과
LG-Caltex 정유의 대응

96년은 전년도 파라자일렌이 주도했던 한시적 수익구조가 붕괴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유가제도상의 문제로 인한 고질적인 정유부문의 취약한 수익구조와 급격한 환율상승, 업계간 과당 경쟁에 따른 과도한 영업 비용 등으로 경영수지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수지악화는 업계 전반에 걸쳐 발생될 것으로 수년전부터 예측되었지만, 그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고 그 폭도 예상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사적인 원가절감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표가 단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는 LG-Caltex정유는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기본에 충실한 경영활동을 펼쳐 왔다.

아울러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고 조직구조 개편과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매자회사의 합병을 단행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자유화, 개방화를 대비한 교두보를 구축했다.

이 합병은 여타 기업들의 감량경영과는 그 차원을 달

리하는 것으로 영업최전방을 강화하여 실질적 판매 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국내 석유업계의 영업 경쟁력 강화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 「LG-Caltex 정유」로의 새출발

1996년의 가장 큰 이벤트는 무엇보다 CI/RI 변경이었다.

1996년 5월 20일 회사 창립 29년만에 회사명을 LG-Caltex정유로 개칭하고 새로운 로고를 채택했으며, 전국 주유소를 비롯한 사업장들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는 단지 외관을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업계를 선도하는 이미지를 획득함으로써 전임직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국 방방곡곡의 2,500개 주유소는 청록색의 산뜻함과 붉은 심벌 마크의 강렬함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거리의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국내 주유소의 모습을 일약 선진국 수준에 도달시킨 쾌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서 세계적인 휘발유 테크론 돌풍과 함께 품질혁신을 선도한 LG-Caltex 정유는 1996년에 이미지 측면에서도 세계 수준에 올라섬으로써 가히 화룡점정의 획

을 그은 한해를 만들었다.

3. 숙원사업의 성공적 완수

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제2경유탐황시설과 제4원유정제시설을 완공함으로써 자율화, 개방화를 앞둔 석유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경쟁전략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일산 7만배럴급 제2경유탐황시설의 완공으로 기존의 일산 5만배럴규모를 합쳐 일산 12만배럴의 경유탐황시설을 갖추어서 국내 정유5사 중 최대의 경유탐황시설을 확보, 초저유황유 생산물량 확보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했다.

제4원유정제시설의 완공으로 LG-Caltex 정유는 일일 원유정제 능력 60만배럴 이상으로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상위권 정유공장을 보유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중심에너지 기지로 도약하게 되었다.

최성수기에 불가피하게 수입했던 물량들을 전량 고객의 사랑을 받는 LG-Caltex정유의 제품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보람일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뚜렷한 신념에 바탕을 둔 LG-Caltex 정유 중장기 투자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은 양식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련 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의 투자 전략의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받았다.

4. '96 경영방침 「초우량 달성의 기반을 굳히는 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표가 단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는 LG-Caltex정유는 어려움을수록 적극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기본에 충실한 경영활동을 펼쳐 왔다.

96년도 경영방침은 95년에 펼쳤던 혁신활동의 성과를 기초로 하고 21세기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결정되었다. 특히 테크론 출시를 통해 휘발유 시장의 변혁을 주도함으로써 업계에서의 위상을 제고한 것과 중질유 분해시설을 비롯한 초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는 96년을 「초우량 달성의 기반을 굳히는 해」로 설정할 수 있었다.

96년을 이끈 경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최우량 환경안전 시스템의 완비와 실천」

LG-Caltex정유를 최고의 무재해,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환경, 안전사고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최초의 이중선체구조의 선박도입, 작업현장에서 사고 원인의 원천적 제거가 가능하도록 장비 확보와 지속적 훈련, 환경 경영 시스템의 보강과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 각종 환경안전 관련 매뉴얼의 재정비등과 같은 노력이 진행되었다.

또한 환경, 안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조직 풍토를 조성하고 CU차원의 위기 관리 능력을 꾸준히 제고해왔다.

그 결과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환경경영의 기틀을 마련한 정유회사에 대한 일부의 그릇된 편견을 쇠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세계 수준의 핵심 역량 확보」

이는 개인 차원의 인재 육성은 물론 조직, 기술, 시설 및 사업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확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전직급에 걸쳐 핵심 인재들을 상당 기간 외국의 초우량 기업에 파견하여 실제업무를 통한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실천적 해외연수를 강화했다.

아울러 직무 수행 능력제고를 위한 영업 및 생산 직무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CU 고유의 문제 해결 능력 개발 과정을 도입했다.

조직면에서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팀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토록 하며 연구개발활동이 영업, 생산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어 회사의 핵심기술개발 역량의 제고가 회사의 활동과 고객의 요구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사 창립 이래 회사의 성장 기반이었던 지역 사회와의 선린관계를 더욱 개선,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밀착형 경영」을 핵심 역량의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지역발전기금을 정규 예산항목에 편성함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기도 했다.

그 결실로 국내 최대의 장학금 지급,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치어 방류, 어장 청소와 같은 실질적인 지역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3) 기업문화의 발전적 전환

이를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일등주의, 도전주의, 성과주의가 설정되었다.

일등주의 달성을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보다 시장지향적, 고객 지향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우리의 활동을 가시적인 경영 성과로 나타나게 했다.

일등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목표를 향해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강인한 기업문화의 기반이 있어야 한다.

1996년은 업계 모두가 처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LG-Caltex정유가 21세기 초우량 기업을 향한 힘찬 발걸음 앞에 장애가 있을 수 없다는 한국인 특유의 도전과 패기를 보여준 한해였다.

이런 강한 기업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년부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도입했다.

이와 같은 기업문화의 조성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과감하게 높은 목표에 도전하여 자기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등의 위치를 구축하고 그 결과 탁월하게 이룬 성과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조적 일터의 완성을 목표로 했다.

5 내일을 위한 도전

96년의 어려운 경영환경은 LG-Caltex 정유의 전임직원으로 하여금 역경을 헤쳐나가는 용기를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사적인 비용 절감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각종 시설투자계획의 적기 완성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 제2경유탈황시설과 제4원유정제시설이 완공되고 연초에 설정한 경영방침에 따라 환경친화기업 지정, 공정개선과 원가 절감을 위한 성과들이 속속 나타났다.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신뢰받는 기업의 면모를 과시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어려울 때 진면목이 나타나며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

1996년은 업계 모두가 처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LG-Caltex정유가 21세기 초우량 기업을 향한 힘찬 발걸음 앞에 장애가 있을 수 없다는 한국인 특유의 도전과 패기를 보여준 한해였다. ♣